

수술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무릎관절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이제는 고통끝!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 10분만 걸어도 엉치가 빠지듯이 아프고 허리가 무너지는 것 같다.
- 허리를 굽히거나 걸음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사라졌다가 다시 걸으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보행거리가 짧아진다.
- 조금만 서 있거나 걸어도 허리가 힘이 없어 앞으로 굽는다.
-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도 저리고 땅기고 무감각하다.
- 엉치 옆 고관절 쪽도 걸으면 아프거나 가만히있어도 통증이 온다.
- 앉으면 꼬리뼈 주위가 아파서 못 견디다.
- 엉치가 시큰거리고 무지룩하게 아프거나 땅기고 시리기도 한다.
- 오래 누우면 허리가 뻣뻣하며 힘이 없다.
-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며 힘이 없다.
- 심해지면 허리가 굳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서서히 굽어지게 된다.
-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저리다.

허리디스크는 허리뼈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주위의 인대, 근육 등의 조직 손상에 의해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튀어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경을 눌러 허리 또는 다리가 아프고 저리며 아침에 무겁고 뻣뻣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더욱 더 퇴행이 진행되면 퇴행성 디스크로 발전하고, 더욱 더 퇴행이 진행되면 척추관협착증이 되어 결국에는 허리가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굽어지게 된다. 대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잘 보이며, 디스크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4번 5번 척추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척추뼈와 주변 인대 등의 변성이 일어나 양다리로는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의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치료는 디스크 탈출 또는 협착을 초래한 손상되고 약화된 요추 4번, 5번 뼈 주위의 인대 힘줄 근육 등 결합조직을 재건, 재생을 도모함으로써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등의

신경압박 현상을 해소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료 후 웬만한 등산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라 할 수 있다.

무릎관절염



-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 쪼그리고 앉을 수 없고, 손을 짚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를때 아파서 계단만보면 도망가고 싶다.
- 무릎 뒤쪽이 땅기고 다리가 무겁다.
- 앉았다 일어서거나 걷다보면 뚝뚝 소리가 잘 난다.
- 조금만 오래 걸어도 걸음걸이가 무겁고 뻣뻣하고 처진다.
- 다리에 힘이 없고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기도 한다.
- 밤이 되면 쭈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 없고 울기도 한다.
- 무릎에 물이 차거나 붓고 물을 빼고 나서도 또 자꾸 붓는다.
- 걸을 때마다 뼈가 맞부딪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오랜 시간 무릎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노화로 인해 약화된 무릎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조직이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로 인해 무릎뼈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은 닳게 된다. 또한 근육과 인대, 힘줄 등 조직의 손상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신경조직의 손상이 시큰거리거나 쭈시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며, 혈행장애와 불순물이 합쳐져 무릎에 물이 차고 붓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괴로운 증상들을 유발하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리한 직장일과 과도한 운동, 다이어트, 비만, 하이힐 등의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층까지도 퇴행성질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관절내시경이나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질환이므로 무릎관절질환이고, 이처럼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질환이기도 하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에서 그동안 관절염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축적된 풍부한 치료경험과 검증된 한약요법 및 침구치료를 통하여 무릎 주변조직의 염증을 제거하고, 근육, 인대 및 주변 조직을 활성화시켜 치료하는 동시에 연골과 뼈를 강화하고 보충시킴으로써, 수술 없이 무릎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은 많은 환자들에게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무릎관절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목디스크, 경추관협착, 오십견



- 한쪽 혹은 양쪽 팔과 손끝이 저리고 통증을 느끼고 어깨가 자주 결리고 쭈시며 통증을 느낀다.
- 밤에 잘 때도 어깨가 쭈시고 팔이 아리거나 저리기도 하며, 잠이 깨기도 한다.
- 뒷목이 심하게 결리고 빠르기도 하고 항상 피곤하고 멍한 무기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 머리가 늘 멍하고 멍하며 쭈시기도 하고 상쾌하지 않다.
- 눈이 자주 충혈되고 침침하고 눈알이 쭈시기도 한다.
- 양 손이 차고 시려서, 심하면 한 여름에도 털장갑을 낀다.
- 사람에게 따라서는 팔꿈치 쪽으로 통증이 집중되기도 한다.
-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목과 팔뚝이 아프다.

어깨와 팔, 손가락이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며 뒷목에 불편을 느끼기도 하는 목 디스크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질환으로, 여러가지 이상증상을 동반한다. 또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유발되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질환이기도 하다. 목디스크의 원인은 목 부위 척추뼈와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 신경 등 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디스크가 점점 손상되고 간격이 좁아져서 동시에 주변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서, 목 주변이 불편해지고 팔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팔이나 손끝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목 주변부 조직의 이상으로 인해 만성두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목 디스크나 경추관협착증은 단순히 디스크 탈출

부위를 절개하는 것과 같은 수술만으로는 그 유발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고 쉽게 재발하게 된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에서 목 디스크나 경추관협착증을 유발시킨 목 주위의 손상되고 약화된 인대와 근육 힘줄 신경 등 결합조직을 재건, 강화시키는 치료를 함으로써, 그 치료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력을 갖는다. 치료의 나이도 본다면, 무릎관절염이나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보다 쉽게 치료됨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회전근개파열은 어깨가 무겁고 결리며 쭈시는 통증으로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밤으로 고통을 받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에는 세수나 양치질도 맘대로 하기가 어려워진다. 밤에 잘 때도 통증에 시달려 매우 힘들고, 이로 인해 잠이 깨기도 한다.

오십견은 어깨관절 주변의 인대, 근육의 파열과 조직손상이 주된 원인이며 대개 회전근개파열이 된 경우가 많은데,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 주증상이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의 오십견 치료는 목디스크나 경추관협착증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원리를 손상되고 파열된 어깨 주변의 인대와 근육 등을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여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물리치료 등의 치료와는 달리 통증을 유발하는 손상된 어깨 조직 자체의 재생을 도모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오십견은 특히 한쪽 팔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고,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어지며,

퇴행성 무릎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연 경희무릅나무의원 대표 원장

"등산도 즐기며 살 정도로 튼튼해 지시길 바랍니다"

Q 다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치료 어렵다고 하는데?

A 무릎은 인체조직 중에서 목이나 허리에 비하여 인체하중을 훨씬 많이 받으며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으로 해부학적으로도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척추관협착증이나 목, 허리 디스크가 무릎관절치료와 비교하면 훨씬 쉬운 정도입니다.

Q 그토록 어려운 관절 질환이 어떻게 깨끗이 치료가 되나요?

A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힘줄, 신경 등 조직의 재생을 도모시키고 남은 무릎의 연골조직을 강화시켜 약화된 무릎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 원인을 치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되고 나면 뭘 수도 있고, 가벼운 등산이나 축구, 조깅, 노동일도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 자신이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연골이 거의 남아 없어서 걸을때 마다 뼈가 맞닿듯이 아픈데도 어떻게 수술없이 치료가 되나요?

A 연골은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닳아 퇴화되는데 다만 관절염환자는 닳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빠를 뿐이며, 그 원인은 관절 주변의 힘줄, 신경 등 결합의 문제입니다. 경희무릅나무한의원에서 그동안 관절염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축적된 풍부한

치료경험과 검증된 한약요법 및 침술을 통하여 결합조직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고 남은 연골조직을 강화시켜 그 원인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Q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하고 싶는데?

A 디스크의 치료원리는 무릎관절과 거의 같으며 임상에서 환자를 실제 치료해보면 무릎관절염의 경우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치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이나 허리도 기본적인 인체해부학적 구조가 무릎과 같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치료하면 주변 조직이 치료 강화되면서 디스크 증상도 치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희 무릅나무 한의원 서울본원 02)3437-7577~8

척추관절 질환의 새 지평

경희무릅나무 한의원이 전국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101210-중-7886-90호(광고)

무릎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치료과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A

Q 대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정말로 낫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나요?

A 환자들 스스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치료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Q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주치료는 경희무릅나무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이며, 침 치료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월 1~4회 까지 하게 됩니다.

Q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환자개개인의 발병시기와 체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증상은 경증, 중증(中症), 말증(末症)으로 나타나고 치료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치료가되며 개개 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치료 후 어느 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나요?

A 모든 것은 환자분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지만 치료 후에는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2~3 시간 거리의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집니다. 제대로 치료가 끝나면 쪼그려 앉게 되고 가볍게 뭘 수도 있습니다.

Q 치료받고 난 후 재발이 안되나요?

A 경희무릅나무 한의원에서 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과가 좋아진 후 1년에 1~2회 정도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일이나 운동을 지속적으로 장기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릎관절염, 허리디스크 치료 **경희 무릅나무 한의원**

경희 무릅나무 네트워크

- 무릅나무한의원 (광주점) 062)352-7577~8 (광주시 서구 광천동 60-20 현우빌딩 5층 광천터미널 사거리)
- 무릅나무한의원 (서울본원) 02)3437-7577~8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69-10 와이타워4층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 무릅나무한의원 (부산점) 051)642-2020~1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5 덕원빌딩 7층 1호선 범일동역 8번출구)
- 무릅나무한의원 (대구점) 053)428-7577~8 (대구시 중구 수동 22 태남빌딩 3층 광 병원 버스정류장 앞)
- 무릅나무한의원 (대전점) 042)471-0717~8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10 웅진갑장 빌딩 3층 시청역 5,6번 출구)

홈페이지: www.murup.co.kr